

대한상공회의소 報道資料	최근 기업활동의 4대 리스크와 정책대응과제
弘報室 ☎6050-3602/5	이 자료는 2월 22일(수) 朝刊부터
※ 문 의 : 기업정책팀 이경상(李京相) 팀장(02-6050-3481) / 박준(朴俊) 대리(02-6050-3483)	

4대 경영리스크의 종합대응책 마련 시급하다

-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의 53% 탈락, 중소기업의 74.7% 도태
- 경쟁격화와 환율하락 속에 M&A 위협과 소송불안감마저 가중

최근 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경영의 불안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장경쟁과 환율불안, M&A 위협, 소송위험 등의 4대 리스크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최근 기업활동의 4대 리스크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들 4대 리스크에의 대처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다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합심해 기업들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의 탈락률은 53%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74.7%가 시장에서 도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익력이 크게 약화돼 적자회사의 비중이 ‘95년 17%, 2000년 20.6%, 2004년 23.3%로 확대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과 인력, 경영노하우마저 취약해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2000년 대비 환율 13.8% 하락, 유가(두바이유 기준) 112% 급등 등 최근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된 데 기인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또한 국내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10년전 14.6%에서 최근 40% 수준까지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1인이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상장사의 숫자가

450개까지 늘어나면서 KT&G의 경우와 같은 경영간섭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투자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표방해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취득에 머물렀던 'Buy Korea' 현상이 언제든지 기업인수 공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펀드의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국내기업에게 허용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기업경영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상장기업의 피소건수는 2002년의 105건에서 2004년에는 32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인 것도 향후 우리 기업들을 소송불안에 더욱 시달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대 리스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최근 동향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시장경쟁	- 글로벌 경쟁격화(포춘 500대중 263개 국내진출) - 중소기업, 경영노하우와 위기대처능력 부족	- 100대 기업 : 10년간 53개사 탈락 - 중소기업 : 10년간 74.7% 도태
환율과 유가	- 환율 : 2000년 대비 13.8% 하락 - 유가 : 2000년 대비 112% 급등	- 적자중소기업: 17%('95) → 23.3%('04)
M&A 위협	- 외국인비중: 10년새 14.6% → 40% - 외국인 1인 5% 이상 주식소유(상장회사) : 199개('02) → 450개('06)	- 외국계펀드 경영간섭 본격화 (KT&G 등)
소송위험	- 소송건수 급증 : 105건('02) → 326건('04) -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	- 기업이미지 추락, 회사역량 소모 등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력과 사업아이템만 중시한 나머지 환경변화와 경영리스크에 제대로 대응 못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저변을 튼튼히 지탱하거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제도 내실화 ▲중소기업에 대한 산학협력 지원 ▲환율의 적정 관리 등 적절한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